

### III. 원불교 교화의 문제 및 활로

박 윤 철(영산대, 수위단회 전문위원)

안 인 석(영산대, 수위단회 전문위원)

1. 이끄는 말	27
2. 교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	28
1) 교구자치제도가 선속하고 실질적으로 시행 되어야 한다.	28
2) 교회 중심의 인사정책이 실질적 이행되어야 한다.	29
3) 교역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30
4) 교역자들의 사기전작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30
5)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31
6) 교당운영상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32
7) 교도들의 관점에서 본 교화상 장애물을 제거해야한다.	33
3. 맺는 말	34

#### 1. 이끄는 말

통계청이 1995년 11월 실시한 「전국 인구주택 총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10년간 교화상황을 점검해보면 7,300여명 정도 교도수가 감소되었다는 통계적인 수치를 접하면서 참작한 심경을 금할수 없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수 있는 이같은 상황은 교단의 총체적인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몇가지로 다시 지적해 보자면

- 교단 제도운영상의 보수성(중앙집권적 운영의 폐해)
- 사회변화(민주화,환경문제,통일문제,정보화시대)에 적극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의 미비
- 교역자 양성에 있어 교화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미비
- 교당을 중심으로 하는 교화우선 정책의 실패  
(교화 자생력을 갖춘 교당육성책의 미비)
- 교도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교화전략의 부재 등으로 지적해 볼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교화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2. 교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 교구자치제도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시행 되어야 한다.

오늘날은 교도들의 지적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의식과 참여의지가 증대되고 있다. 지역교도들은 지역 재정이 지역교화 발전을 위해 투자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지역교도들에게 직접 서비스 되는 교단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분권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지역교화 활성화를 기해 나가야 할 시급한 시점이 되었다. 교구자치제는 잘되면 좋고, 안되면 적당히 활용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시대의 흐름과 오늘날의 상황이 이 제도를 통하여 않고는 교단의 재도약, 교화 재중흥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최선의 정책결단으로 이해되고 추진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총부는 교구자치 제도를 교단의 사활이 걸린 최고 중요정책으로 알고 어떤 면으로든지 아낌없이 지원하는 자세를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인사권,행정권,재정권이 지역교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도 주체적으로 행사될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교구자치제가 정책판단의 결과가 아닌 여론무마용 내지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초한 것이라면 교단은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엄청난 모순과 퇴보의

아픔을 겪어야 할것이라 생각된다.

## 2) 교화중심의 인사정책이 실질적 이행되어야 한다.

교당은 교단존립의 근거지요 생산의 근원지라 할수 있다. 또한 교당은 교화의 실질적 현장이요 터전으로서 교단의 뿌리와도 같은 곳이다. 뿌리가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단의 모든 에너지는 교당을 살리는 방향으로 모아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당이 교화 자생력을 갖추고 되살아나지 않고서는 교단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전자에서 역설한 교구자치제의 조속한 실시 역시 교당교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 교화 지휘부를 교구단위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강조된 것이다.

교화활성화를 위해서는 교단내의 최고,최상의 인력들이 현장으로 나와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교단의 인력 편제는 생활기반의 문제로 인해 총부중심으로, 기관중심으로 고급인력들이 모이고 있다. 교단의 총체적인 교화력을 확대시키는 문제와는 역행되는 비능률적인 인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구단위로 생활기반을 확보해 주고 기관으로만 몰리는 인력들이 지역단위로 흘어져서 생활 근거지를 확보하고 교화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조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중앙과 기관은 정확한 직무분석에 의해 필요한 인력만 배치하고 나머지 유휴 고급인력들을 교구와 교당 중심으로 적극 배치하는 총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순환제 인사를 일시에 변경 시킬 수 없는 현실은 감안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교구장,사무국,교구내 중요교당과 기관만큼은 지역적 거점인사를 정책적으로 실시 해 나가고, 되도록 지역교구와 교당의 성공적 교화를 위해 일생을 함께 하는 사람이 나올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교화, 거점교화의 능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교역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교단의 교역자 교육기관은 적어도 교단의 최우선 과제와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해낼수 있는 교역자를 길러내는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 교단의 최우선 과제는 교리정신에 바탕하여 확고한 신념과 실질적인 교화력을 갖춘 교화전문 인재를 양성해 내어 교단의 현안을 돌파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단의 해결과제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역자 양성과정은 철저히 평가하여 방향을 선회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현 예비교역자 교역과정은 철저하고도 객관적 안 평가과정을 통해 재점검 되어야 하며 교단의 목표달성을 부합되지 않는 교육 기관과 교육과정은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단의 전교역자들이 교육문제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결의로 힘을 모아 주었던 “교육발전 위원회”의 교육발전 계획안 정신에 비추어, 全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과연 교화활로를 열어가는데 있어 필요한 요건을 갖춘 교역자를 제대로 양성해낼 수 있는 과정인지를 진지하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재정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4) 교역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 **(1) 복지여건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교역자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誘引度를 높이고 현재 교단내에 봉직하고 있는 교역자들의 직무에 대한 没入度를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복지적 배려를 제도화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복지적 배려는 단순히 보장적 여건을 확대 시킨다는 소극적 의미 보다는 안심하고 직무에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교단의 총체적인 능률을 향상 시켜 나간다는 적극적인 의미로서 이해 되어져야 할것이다.

#### **(2) 상호 존중적 입장에서 직분이 인정되는 교역자 윤리풍토 조성이 시급하다**

요즘 하위직급의 교무와 상위직급의 교무 사이의 매끄럽지 못한 관계대립으로 인해 교회에 많은 장애현상이 유발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여러 가지 측

면에서 문제제기를 할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상하관계 이전에 각자의 고유한 직분이 인정되는 윤리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하위직급 교무는 상위직급 교무의 사사로운 수하가 아니다. 교단의 公命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당당한 公人이다. 그러므로 公的인 존재로서 대우 되어져야 한다. 직책상으로는 수직적인 관계일지 모르지만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당당한 교화의 파트너로서 그 고유한 직무에 따른 권리와 영역이 보장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져야 한다.

이같은 교역자 상호간에 직분상의 公的인 존중정신의 확산은 교역자, 특히 하위직급 교무들의 사기진작과 긍지감을 북돋우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곧바로 교도들 앞에서의 긍지감을 조성하게 하고 자신있는 교화를 펴나가게 하는 원천이 되게 한다.

## 5)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단법(헌규)에 명시된 모든 규정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단법상의 모든 규정은 교단의 건실한 발전과 구성원들의 자주적인 참여의지를 최대한으로 유발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 교단의 성적제도에 관한 규정들은 필히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성적제도는 교단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교단성장을 위해 절대적인 공헌을 해왔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또다른 측면으로 평가해 볼때 교역자와 교도들에게 상당한 거부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경쟁의식과 물량적 비교의식을 유발 시킴으로서 건전한 신앙생활과 자주적이고 생산적인 교화의지를 좀먹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건전한 신앙생활과 자주적이고 생산적인 교화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정들은 이제 합리적인 관점에서 재고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 6) 교당운영상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1) 총부, 교구, 기관을 막론하고 모든 정책의 중심은 교당 살리기, 교당 교화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교당은 교단존립의 근원지요, 생산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2) 교당의 수입재원은 근본적으로 교당교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주체적인 교화의식을 고양 시켜야 한다.

이에는 중앙기관이 교당에 대하여 무리한 재정원조를 요구하는 손벌리기 관행을 절제하고 자립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점과 교당 교무진들도 현재 교화지에 대한 확고한 소속감 아래 거시적인 교화계획을 세우고 주체적이고도 효율적인 교화투자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잡다한 각종 후원통장 제도의 일원화 내지는 축소화 시급)

(3) 교당예산의 철저한 공개를 통해 교도와 함께 公開的으로, 公的으로 처리하는 교당운영 풍토를 조성하여 교도들의 교당 참여의지를 확대 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교도 자치적인 교당 교화체제를 구축하는데에 심혈을 기우려야 한다.

(4) 통계청 조사에 따른 교도수치의 감소 현상이나 총교도수에 따른 출석교도 수를 대비해 살펴보면 입교이후 지속적인 관리소홀로 이탈되는 냉담교도가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수 있다.(총교도수에 따른 출석교도율은 50% 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충등록 교도수의 50% 이상이 냉담교도라는 의미) 그러므로 현재 교당교화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과제는 냉담자들을 실질적인 교도로 만드는 작업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 프로그램이 연구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5) 지역교당에 남자교무들이 많이 진출될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정토회원들을 교당에 함께 거주토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교무보좌 역할을 할수 있도록 공식화 해야 한다. 따라서 교단차원에서 정토회원 교화연수과정 개설하고 보좌역활에 대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정토회원들에게 자신감과 공적인 소명감을 부여하여 정체감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

## 7) 교도들의 관점에서 본 교화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은 민주성과 다양성, 창의성이 보다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생활면에서도 利害관계를 따라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匿名性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잡한 사회속에서 지쳐있는 현대인들은 삶에 리듬과 활력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취미, 오락, 유흥을 위한 편하고 다양한 여가시설들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교도들에게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는 교화방법으로는 더 이상 교화활성화를 기할수 없다. 이제는 철저히 교도들을 분석하고 교도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교화방법론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다음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교화단 운영에 있어서 딱딱하고 구속적인 진행방법이나 무리한 일기 쓰기 강요등과 같이 의무를 강조하는 식의 교화방법은 고려 되어져야 한다.

자유로우면서도 편하며 자발적인 결속감을 통해 응집되도록 하는 교당분위기, 교화방법론이 적극 계발되어야 한다.

(신앙성 고취 프로그램을 기복적인 면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교도들의 편의를 위해 여전에 따라 최대한으로 일요법회 개설수와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증설 운영해줄 필요가 있다.

(3) 교회는 全人的 활동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교도와의 가장 보편적이고도 직접적인 접촉은 역시 설교를 통해 이루어 진다. 그러므로 감동적인 설교의 여부는 교화활성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다. 설교연마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 3. 맷는 말

여러 가지 문제점과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교단은 대외적으로 기성종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각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건전하고, 바람직한 종단으로 인증받는 등 그 위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이고 진실, 건전한 의식을 가진 교역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교도들의 극적인 협조의 결과로서 교단의 밝은 전망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라 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같은 가능성 있는 내적 에너지를 다시금 재정비하여 교단의 현안 교화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에 그 의지를 집중 시킴으로서 오늘날의 문제가 교단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이에 몇가지 제언을 통해 교화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결단할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문제를 문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해결 가능한 순서에 따라 결단하고 실천할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교화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제안을 정리하면서 내내 머리속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진짜문제는 ■■■■■의 문제였다.